



엄마 마중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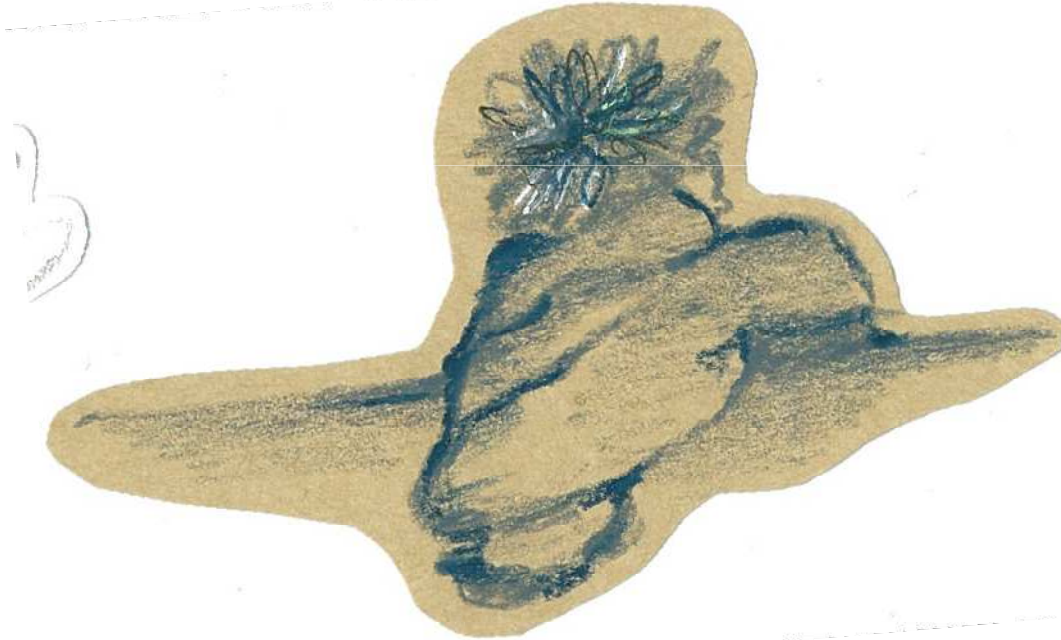
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 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.



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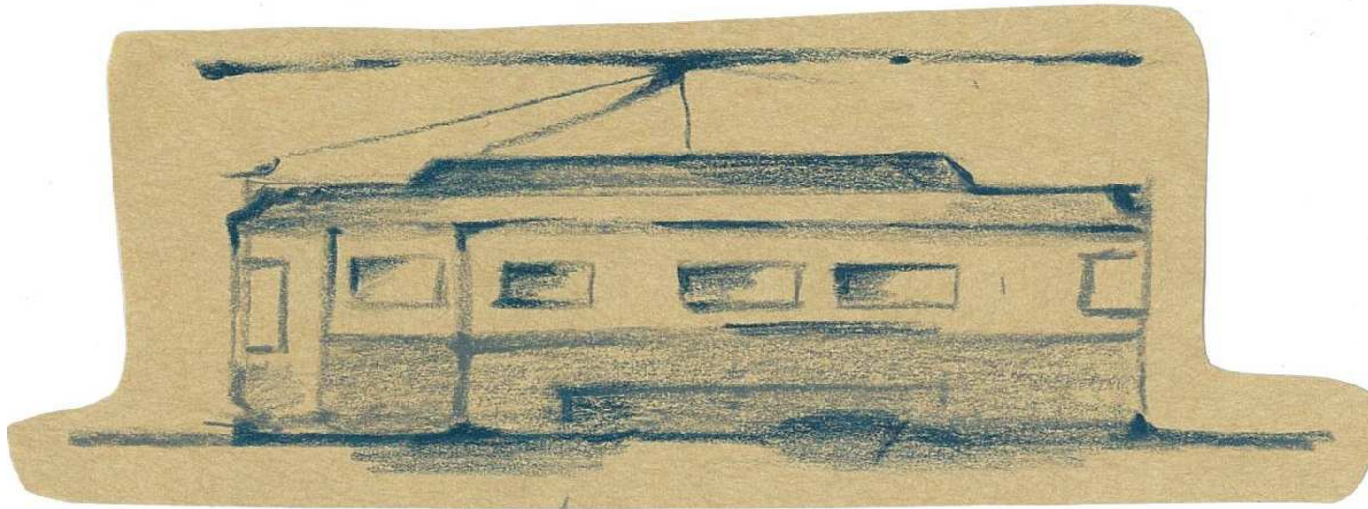
그리고 '깁'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.





3

이내 전차가 왔습니다.





4

아가는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.
"우리 엄마, 안 와요?"
"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" 하면서 차장은 땡
땡하며 지나갔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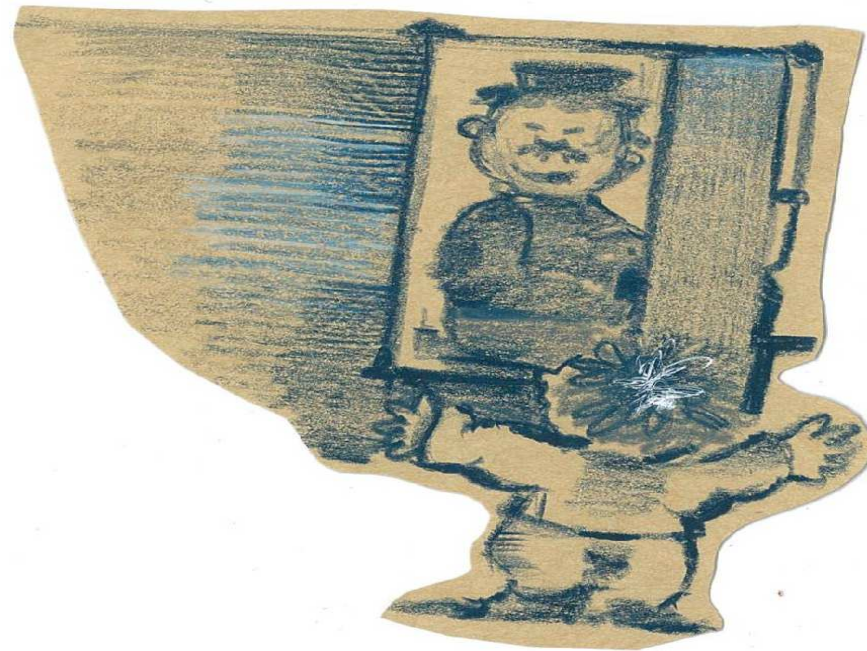
5

또 전차가 왔습니다.

아가는 또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.

"우리 엄마 안와요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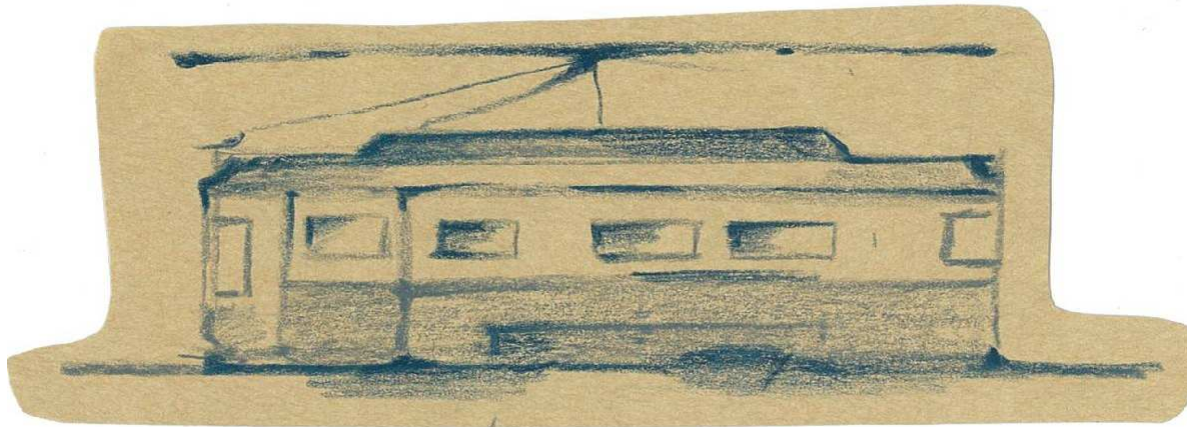
"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?" 하고 이 차장도 땡땡하고 지나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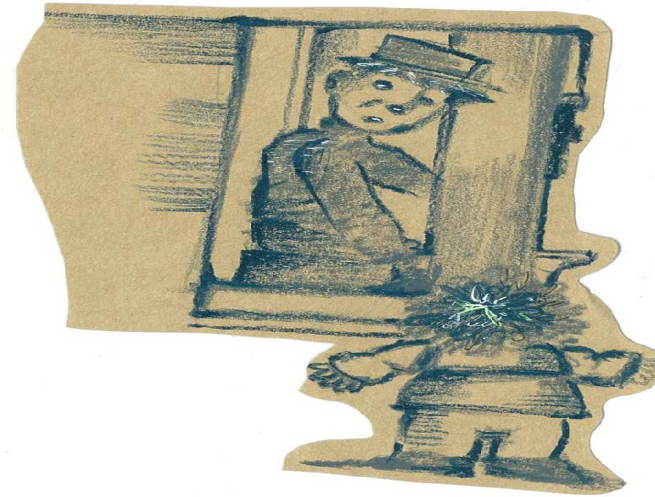




6

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.





7

아가는 또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.

"우리 엄마 안와요?"

오!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. 하고 이번 차장은
내려와서,



8

"다칠라,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군데만 가만히 섰거라.
응?" 하고 갔습니다.





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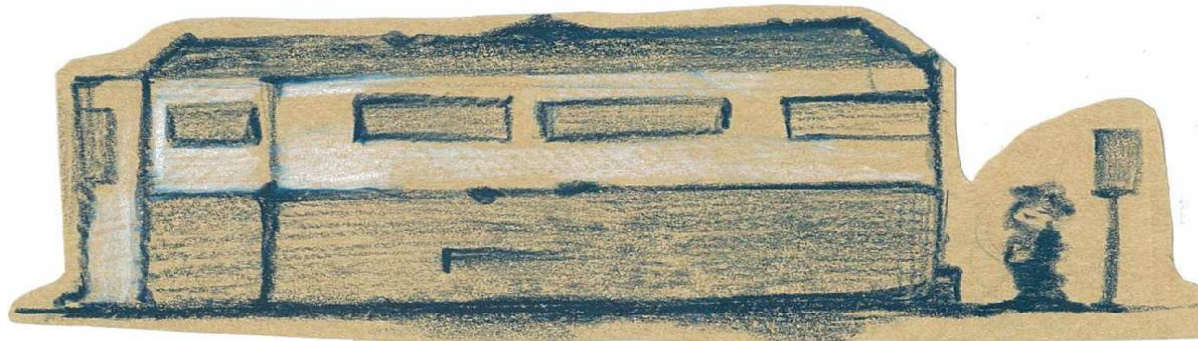
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하고





10

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고





11

코만 새빨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.





12

....

